

# 윤락여성, ‘고객이 원치 않아’ 콘돔기피

이 주 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국내의 경우 성매매 지역을 통한 에이즈 감염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가 성관계인 점을 미루어 본다면 성매매 지역은 에이즈 예방활동 대상지역이다.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콘돔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전국 10개 지역의 남성 8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48.4%가 성구매 경험이 있으며 특히, 기혼 남성의 54.2%가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의 상품화, 기혼 남성의 무분별한 성행위에 대하여 윤리적, 도덕적 분노가 크게 조성되었다.

필자는 윤리적, 도덕적 분노와 함께 성병 및 에이즈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함께 하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성매매지역에서 에이즈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성매매지역은 중요한 에이즈 예방활동 대상지역이다. 왜냐하면, 에이즈는 성관계가 중요한 감염경로이며 과거에는 동성애자의 성관계가 주요 감염경로였으나 최근에는 이성간의 무분별한 성관계가 주요 감염경로가 되기 때문이다.

## 콘돔은 에이즈 · 성병 막는 최선책

외국의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동성애자(은밀한 의미의 양성애자)가 성매매 여성과의 관계를 통하여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성매매지역에서의 콘돔사용 촉진사업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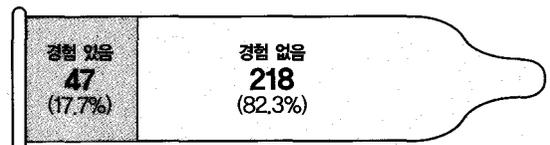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뿐만 아니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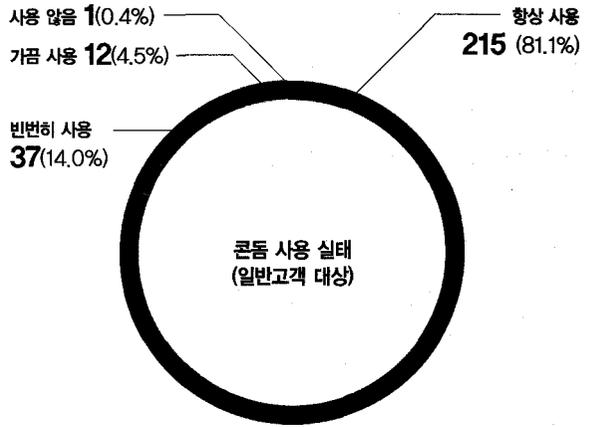
콘돔사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콘돔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조사결과에서 성구매 후의 느낌으로 ‘성병에 걸릴까 두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관계 후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후유증을 크게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콘돔 사용은 윤락여성을 성병 및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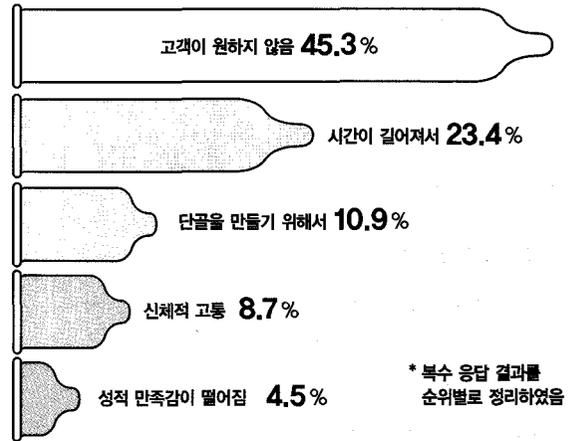
그러나 하루에 6-8회의 성관계를 가져야하는 윤락여성은 콘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착용의 불편함, 성적 만족감 감소 등의 이유로 남성이 반대할 경우 콘돔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윤락 지역에서의 콘돔사용 실태와 콘돔사용

윤락여성의 과거 성병 경험률





**콘돔 사용 주요 장애요인**



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 10월 창량리 지역의 자율정화위원회 도움을 받아 윤락여성 265명을 대상으로 성병 및 콘돔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윤락여성의 과거 성병 경험률은 17.7%였다.
- ☞ 윤락여성의 94.7%가 콘돔 사용을 항상 권하고 있었는데, 항상 사용하는 경우는 81.1%였다.
- ☞ 콘돔 사용의 주요 장애요인은 '고객이 원하지 않음', '시간이 길어져서',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 '신체적 고통'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콘돔 사용을 거부함에 따라 콘돔사용이 어렵게 되고 윤락여성은 남성에게 만족감을 높여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콘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윤락 지역에서 성병 및 에이즈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성병은 완치가 쉽지 않으며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콘돔사용이 더욱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병 및 에이즈 예방법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구매자인 남성과 윤락 여성을 성병 및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윤락 지역에서 콘돔 사용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는 윤락 지역의 콘돔 사용 활성화 캠페인은 사회적으로 자칫 윤락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제약된다. 따라서 윤락 여성 스스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병 및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